

## 정년 전후에 달라진 일들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효택

나는 정년을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7시 전에 집을 나서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아침형 인간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 주중에는 아침 7시 전에 집을 출발하여 대학 연구실에는 7시 40분경 도착,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하였다. 주변 친지들은 정년 후에 새벽부터 어디로 갈 곳이 있겠느냐고 의아해 하였지만 내 경우에는 대학의 명예교수실로 출근하든지 또는 내 개인 사무실로 가든지 하며 매일 매일의 습관을 유지하려 하였다. 하루를 남들보다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일찍 시작한다면 일 년이면 260시간(52주 × 5일 × 1시간 = 약 11일), 10년이면 2600시간(약 110일)의 삶을 더 산다고 생각하였다.

정년 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지하철로, 버스로 또한 걸으며 대학에 출근하면서(소위 BMW = Bus + Metro + Walking) 교통혼잡으로 인한 번잡함을 피할 수 있어 좋았으며 걸으며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즐겼다. 누구보다 일찍 연구실에 출근한다는 자부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늦게 출근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곤 하였다. 나의 연구실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도 반드시 아침 8시 전에 출근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학사과정 학생들에게도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권장하곤 하였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습관은 지금도 여전해서 여의도에 있는 회사 출근도 가장 먼저 하는 편이다.

정년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근무지와 주변 환경의 변화이다. 정년 전에는 관악 캠퍼스에서 33년여를 보냈으나 지금은 일주일에 3일은 여의도에서 지낸다. 다행히 집에서 여의도로 오는 지하철이 있어 교통은 편리하며 특히 이 지하철은 급행도 있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여의도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만 65세 정년을 하고 나니 지하철 요금도 무료인지라 미안한 점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지공대사(동사무소에서 지급해 준 교통카드로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는 사람)이다. 정년 전에는 지하철 요금이 월 평균 5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이 금액이 절약되는 셈이다. 그동안 여의도에 왔던 일을 돌이켜 보니 오래 전(1980년대) 선배님의 회사가 이곳에 있어 서너 번 저녁과 맥주 마시러 온 적이 있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미나 또는 회의를 할 때 또한 중소기업종합전시장, 사학연금공단 등지에서의 회의 참석차 온 기억이 난다. 더욱이 여의도 주변 한강 고수부지는 지나면서 보기만 하였지 이곳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없다. 정년 후 여의도에서 거의 15개월을 지내며 지하철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주변, 여의도 공용버스 정류장, 여의도 공원과 한강 고수부지를 점심 식사 후 산보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한강 고수부지에는 잘 정비된 산보 길과 자전거 길, 휴식공간과 시설, 매점 및 차 마시는 곳, 주차장이 잘 정비되어 있다. 최근에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안내할 맛깔스런 식당도 두세 곳 확보하였다. 여의도 공원도 산보하는 길과 자전거 길, 휴식 공간, 연못과 수목 등이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과 여가시간에 산보를 즐기고 있다. 여의도는 4월 봄날 여의도공원의 벚꽃이 만개할 때와 10월 강변에서의 불꽃놀이 축제 때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라 한다.

정년 이후 달라진 점 중의 하나로 점심과 생활공간이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 빌딩은 13층의 신축빌딩으로 파란 유리벽이 특징인데 지하 1층에 직원식당이 있어 이곳에서 식사를 하며 회사가 식사비를 부담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내가 점심값을 지불하였으나 이곳에서는 회사가 부담한다. 낮 12시경이면 식사하려는 직원들의 대기 줄이 매우 길며 식사할 테이블이 북벼서 12시 이전에 오든지 또는 12시 반이 지나 오는 것이 좋다. 대학에서는 식당에서 교수자리가 별도로 있어 기다림도 없이 여유 있게 대접 받곤 하였다. 또한 은행에 가도 교수들은 별도의 창구에서 업무를 보아 주었고 대학 내에서는 교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여의도에서는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아 차례를 기다려야 하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기다리는 인내심을 키워야 하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개인 연구실과 실험실이 있어 편리하게 독단적으로 이용하지만 회사에서는 내 개인 사무실 공간은 있으나 직원들과 함께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공간의 경계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며 항상 직원 서로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교수 연구실은 독립된 공간이며 그 안에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나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점심 후 잠깐이라도 졸 수가 없다.

정년 이후 출근의 변화는 일주일에 월, 수, 금요일 3일은 여의도로 가고 화 목요일은 대학 명예교수실로 또는 제자들이 교수로 있는 사립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정년을 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내가 후원하는 사회봉사 기관에 얼굴을 내밀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또한 일주일에 하루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서관에 가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2학기과 금년 1학기에는 사립대에서 목요일 오전에, 또한 회사에서 직원 사내교육을 위해 수요일 오후에 하고 있어 일주일에 2회 강의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기술용역을 수주해야 하며 회사의 얼굴로서의 나의 능력과 위상을 발휘하여야 하며 적어도 내 봉급의 10배 이상을 회사에 벌여 주어야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대학에서 봉급을 받으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다. 대학에서처럼 연구논문을 쓰고,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학술활동은 줄어들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였으나, 지금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술 교육을 하고 자문하며 직원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이제는 회사의 출

퇴근 시간을 지켜야 하고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가야 한다. 예를 들면 회의나 회식, 직원들과의 지위에 따른 인간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이 대학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다. 돌이켜 보면 대학 교수생활은 내가 후배 제자교수들에게도 말하였듯이 참으로 자유로운 신선놀음이라 할 수 있다. 누구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열심히 강의하고 교육하며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며 사회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사회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방학 중에는 교수들이 회사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이 있어 회사와 사회를 이해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함도 바람직한 산학협동의 예가 될 것이다.